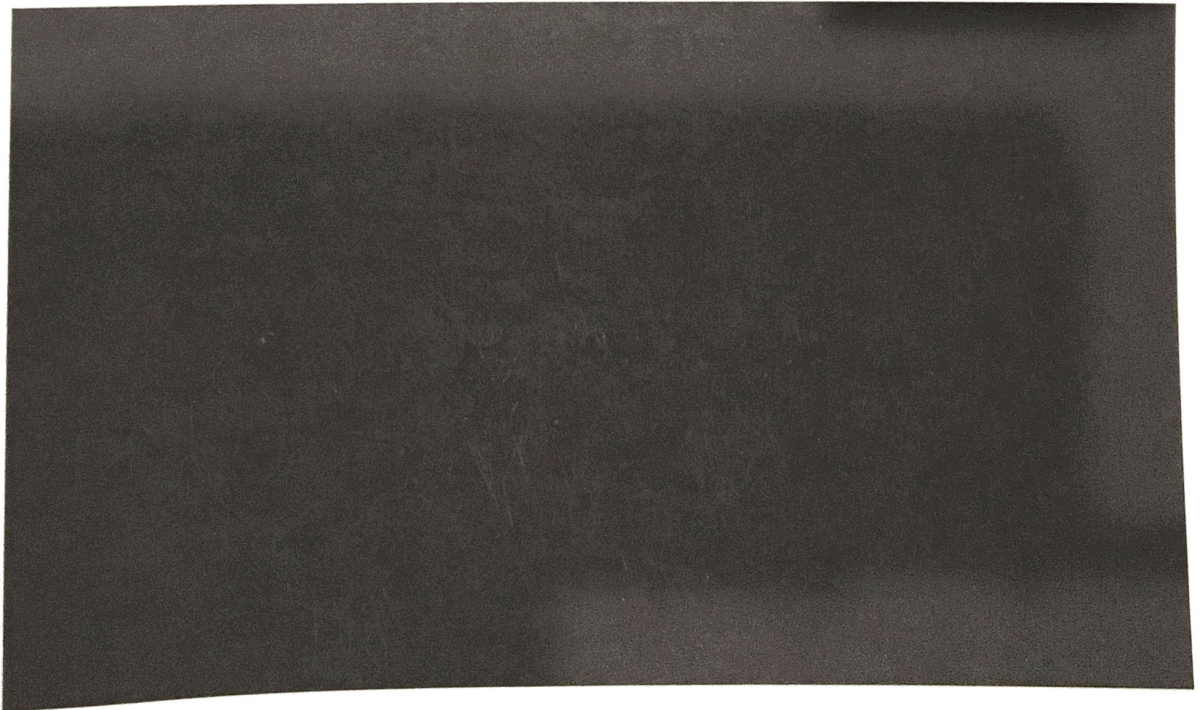


들숨과 날숨

〈유비호 개인전 Belief in Art〉

/ 2013. 12. 20 ~ 2014. 1. 10 / Art Space 갤러리 정미소

유비호, 〈신념의 선〉, 퍼포먼스
기록영상, 23분 50초, 2013





(a)



(b)

(a)
유비호, <위안의 숲_겨울(여)>
디지털프린트, 120×180cm, 2013

(b)
유비호, <신념의 산>, 퍼포먼스
기록영상, 23분 50초, 2013

퍼포먼스, 설치, 영상 등을 미디어로 작업하는 유비호의 이번 개인전 <Belief in Art>는 전시명에서 알 수 있듯 작가의 예술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2009년 <유연한 풍경>전이 사회의 비가시적 담론이나 사회와 개인의 간극 등, 다소 사회적 관심이 엿보였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에 대한 고행자와 같은 물음으로 변화되었다. 2000년부터 미디어 작가로 활동했던 유비호가 묻는 예술에 대한 고뇌 혹은 신념은 무엇일까? <Belief in Art>전은 자신의 예술적 길을 되묻는 것처럼 보인다. 영상 5작품, 수채드로잉 3점, 사진 2점으로 구성된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영상 <위안의 숲>에서 끊임 없이 자신과 예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작가를 볼 수 있다

들숨

<Belief in Art>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7분 10초의 영상, <위안의 숲>이다. 이 작업은 퍼포먼스 기록영상으로 제목에서 암시하듯 작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대의 비천함에서 몸부림치는 바로 우리를 겨냥하여 위로하는 위안의 숲이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견디려고 옷을 덧입으며 열을 내지만 자연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뭇잎을 몽땅 벗어 버리고 뿌리에 최대한 많은 수분을 축적한다. 인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무 앞에서 작가는 인간의 삶이 아닌 자연과 닮은 모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영상에서 등장하는 남·녀는 각각의 눈 쌓인 비탈길을 걷는다. 그들은 걸으면서 입은 외투며 속옷이며

하나 둘 벗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린다. 그리고는 산속의 많은 나무 중 가장 큰 원경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나무에 손을 얹는다. 7분 가량의 영상에서 드러나는 날씨, 인간과 행위, 정황 모두가 불분명한 은유로 다가온다. 시린 발바닥을 땅과 마주하며, 바람과 마주하며, 과연 퍼포머이자 작가인 행위자는 어떤 생각일까? 연약한 인간에 맞선 시린 자연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무섭고, 완강하며, 두렵기까지 한 삶의 현장으로 비유된다. 혹한의 겨울 또는 사회 앞에 작가가 내딛진 물리적 몸은 예술가로서의 결단이자 집념이 아닐까?

날숨

이 영상을 토대로 기록한 사진 작업 <위안의 숲_겨울(남)>, <위안의 숲_겨울(여)> 두 사진은 산 등선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어 보인다.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지만 하나이다. 산 등선 아래에는 가늘고 긴 나무들이 야단스럽게 서 있고, 그 중 가장 큰, 무게 중심이 있는 전경의 나무에 남·녀는 나체로 나무 한 그루씩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인물보다 조금 아래의 각도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구름에 가려 빛조차 들지 않는 겨울날을 보여준다. 이 프레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숲 어디에서도 위로 받을 수 없을 만큼 험벗은 풍경이다. 숲의 중심 나무는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작가 노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무는 상징적인 메타포이다.

<위안의 숲>과 연장선상에 있는 퍼포먼스 기록영상의 <신념의 산>(2013)은 지극히 개인의 성찰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가가 심기일전하여 작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의 행위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한다. 하늘과 평평하게 솟은 등선으로 공간이 분할 돼 있고, 그 중심에는 세로축의 작가가 멀찌감치 서 있다.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공간에 작가는 등선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의 15분짜리 영상이다.

유비호의 개인전에서 작가가 끊임없이 성찰하는 고민이야말로 작가뿐 아니라 모든 삶에 던져진 연약한 인간의 고민임을 공감하게 한다. 그 긴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도록 돕는다. 자신과의 사투, 세상에 맞선 사투, 설사 그것이 바위에 계란치기일지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어 뱉는다. 다시 세상으로 나서며. ④